

독일의 도시설계

Urban Design and Natural Environment

Prof. Dr. Ing Michael Trieb

조인숙 정리

ISSUE

3. 종합 토론회(Discussion Session)

사회 : 좌장이신 강 병기 한양대학교 교수님, 토론자인 세 분, 국토개발연구원의 안건혁 수석연구원, 서울특별시의 전 회장 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주식회사 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의 김 우성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통역은 역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김 기호교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 종합토론후 Floor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병기 :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이 남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Trieb교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Urban Design에 관한 사상이랄까 사고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직접 이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아틀리에가 수행하고 있는 Project 두개를 가지고 Trieb교수의 Urban Design에 대한 철학 또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여기에 와 계셨던 분들은 그간에 이론적인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론과 현실이 그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다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소개된 토론자로 지명되신 세 분은 모두가 도시건축이나 도시설계 분야에 관여하고 계시면서도 제각각이 일하는 입장과 직능의 영역이 다른 분들입니다.

이쪽에 계신 안 건혁 수석연구원께서는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에 관한 제도 혹은 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 건의를 하는 연구기관에 계셔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타당한 진로를 찾아낼 수 있을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혹은 또 기여해 오셨던 분입니다.

두번째 서울시의 전 회장 도시경관과 과장님은 최근에 서울시가 우리의 도시경관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

의 표명으로 만든 도시경관과의 초대 과장이십니다. 이 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에 일어나는 (Trieb교수의 말씀처럼 하면) 변화라든가 특이한 것이라든가 하는 등등을 좀더 전체적 맥락속에 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 민원의 현장에서 여러가지 고충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프랜의 김 우성 소장님이 이 두 분과는 달리 Trieb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 건축가로서의 자기 표현, 일종의 엘리트즘, 그러한 것을 도시속에 자기자신의 존재를 심고자 (직능상) 애쓰고 계시는 실무건축가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분에게서 Trieb교수의 어제의 일반적인 이론강연과 오늘의 실예를 통해서 작업의 내용과 과정을 보여주신 강연에 대해 세가지 입장에서 세 분이 보신 감상 혹은 이견 등을 한 분에게 10분 내지 15분 간씩 듣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라는 실정속에서 세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의 감상을 통해서 Trieb교수의 강의와 프로젝트의 실용성을 한 번 조명해 봄으로써 청중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혹은 이해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분께서도 Trieb교수에게 한국과 비교해서 여쭙어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중석에 계신분에게도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메모해서 주시면 그것을 김 기호 교수께서 Trieb교수에게 전하고 그걸 총괄해서 대답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분의 발언은 통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기호 교수께서 그냥 옆에서 개인적으로 통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앉아계시는 안 건혁 선생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혁 : 국토개발연구원의 안 건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건축

사협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설계에 대해 건축가들이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에 이번에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신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일이라기 보다는 바로 건축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시설계와 건축이 좀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자리에 나와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독일의 도시설계는 우리의 도시설계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여러가지 도시설계의 기본적 원리 또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좋은 여러가지 발표 내용들을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어제, 오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독일에서 하는 도시설계와 우리 현실을 비교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어제 발표 내용에서 느낀 것으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점들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트림교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내용은 도시라는 것이 생태학적 견지에서 볼 때 영원히 변화하는 하나의 생명체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련의 사항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으로 적합한 도시환경이라는 것은 비단 생명 유지를 위한, (표현을 생태기술적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생태기술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림 범위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저희들의 표현으로 '환경의 질' 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환경의 질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늘 도시설계를 하면서 주장해 온 최종적인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에 있어서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 그 자체일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는 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와도 흡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물체 하나 하나의 외관이나 색채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현상이 시각적으로 하나도 동일한 것이 없듯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체로서 갖는 동질성, 상호간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내용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연속

성과 변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보셨습니까라는 그러한 것이 도시설계 작업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변화의 자취가 어떻게 잘 보존되어 맥을 잇는 가 하는 것이 도시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속에 남아있는 연속된 질서 -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은 전통의 개념과도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전통과 같은 것을 면면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런 것은 도시의 문화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시설계의 개념 그리고 도시설계 방법론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도시현실 또 도시설계가 하고있는 작업의 내용, 현황과 대조해 볼 때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몰이해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 즉, 급성장, 도시의 고밀화에서 오는 과중한 개발압력이나 지가 상승, 행정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를 돌이켜보면은 과거의 많은 것들을 소멸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환경이 현대적인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어쩔 수 없는 또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을 경험했던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겪은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도시에 있어서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나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질서가 소멸된 후에 이것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리 도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런 과도기의 너무나 빠른 변화, 생성과 파괴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우리 도시설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과도기에 도시설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트립교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여러가지 연속성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유지해야 될 질서가 무엇이며 이 질서의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점에서 사실 우리는 상당히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 시민의 참여, 시민이 생각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도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찾는데 도시설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시설계에서도 시민과 건축가에게 제시할 도시 환경 개발의 방향 (물론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이어야겠지요).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건축가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여기에 반발과 마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도시설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발생에는 이 도시설계 전문가, 도시계획가,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각 기관의 잘못이 물론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도시설계라는 것이 건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사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 너무나 빠른 변화에 익숙해졌고 지나치게 새로운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이미 구식이고 뒤떨어진 양식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Respect하지 않는데에 우리 도시설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도시에 있어서 도시설계라는 것은, 그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만,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시를 도시설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방법론을 상세하게 보여 주셨습니까라는 독일의 경우 우선적으로 과거로부터 도시설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즉 역사의 흐름, 맥을 또, 역사적인 어떤 연속성을 추구해 나가고 그러한 요소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축이 존재하고 새로운 도시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독일의 도시설계인데 반해서, 우리의 도시 설계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시가 안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제가 트립교수께 한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1) 하나는 우리의 경우에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가지, 새로운 도시, 기존 시가지라 할지라도 과거로부터 단절된 시가지의 도시설계를 할 때 과연 어디서 부터 도시설계를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싶고,

(2) 두번째는 어떤 새로운 것, 어떤 모더니즘(Modernism) 이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과 같은 새로운 흐름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의 욕구와 갈등을 도시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강병기 : 감사합니다. 지금 안 건축 씨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부터 발상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에서 무언가 발상하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현실속에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맡고 있는 전과장님, 독일의 경우하고, 말하자면 과거에서 실마리를 찾는 상황하고 새로운 것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민원이

랄까 욕구 속에서 행정을 하시는 입장이지겠는데 말씀부탁드립니다.

전희상 : 서울시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어제 오늘 Trieb교수의 강연을 듣고 독일의 도시설계, 도시디자인이 그렇게 섬세하고 상당히 디테일 한다는 점에 많은 느낌을 받았습시다. 제가 도시경관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설계 분야도 제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 자리나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된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분명히 독일은 아니고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전통적인 도시의 외형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다가 문화의 생명력이나 적응력이 우리의 목조건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지금의 도시경관을 한번 살펴 보고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의 도시경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였던 곳입니다. 당시의 도성의 모습은 북한산과 남산사이에 위치해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산하와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금세기초 일제의 침략과 함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건설된 서울의 건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덕수궁옆에 있기 때문에 덕수궁을 잘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덕수궁을 내려다 보면 우리의 궁궐이 궁내에 있는 석조전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 서울은 해방과 동시에 다시 전란에 휩싸이고 피폐한 경제 상황에서 판자집이라는 개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를 보면 53년에 100만을 돌파합니다. 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88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합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급팽창입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인구에 따라서 서울은 마치 아메바와 같은 팽창을 거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된 서울의 모습이 서울다운 전통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제도에서도 한번 원인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62년도에 처음 건축법이 생깁니다. 건축법은 법체계상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이고 도시계획이란 말 그대로 도시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며 이를 구현하는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란 주로 도로계획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계획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법도 개별 필지에 대해 토지 상호간의 분쟁적 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로 중점을 둘 뿐이지 우리제도 어느 곳에도, 개발될 서울의 모습을 우리의 정감에 맞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지나 세련된 기준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는 자기 토지의 경제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제약이 없었고 한편 몰려드는 인구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뒷받침을 해 온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동안 우리의 발전이 너무 급속했고 또한 이러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수요를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경관이란 과거 개발 당시에는 사치스런 과제였고 더구나 우리의 감성에 맞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 엄두도 못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거의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아직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다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현실적인 개발 수요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개발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큼 경제규모도 커졌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어 온 분야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졌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은 과거의 개발양태를 돌아보고 개발에 대해 보다 진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같은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작년말에 도시경관과라는 생소한 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욱 소중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가급적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장래 서울의 모습에 대해 도시경관과를 맡고 있는 저의 고민은 우리 서울이 600년 된 고도이지만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일까, 또 서울에서 우리 감성에 맞는 그런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또 오늘 같은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런 덕목은 추구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필요한 것인가, 또 그런 모습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의 현실감을 위해서 한가지 문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동네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경관 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산동네에 22층 고층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동네에 올망졸망 형성되어 있는 동네를 급격히 고층아파트로 개조한다

는 것은 도시경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사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은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이런 자연환경은 매우 독특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활, 전통에 바탕이 되기도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이런 skyline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될 산동네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도시경관차원에서 어떤 입장에 서야될지 저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서울의 자연경관이나 정서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개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까, 그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기 :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Trieb 교수에게 던진 것이니까, 여기 청중에게 던진 것이니까?

전희상 : Trieb 교수도 좋고 청중도 좋습니다.

강병기 : 마지막으로 우리 김 우성 소장님. 아까 안 건축 선생 질문에 있었던 듯이 하시는 일이 새로운 것의 수용욕구랄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내놓으시는 쪽의 입장이실텐데, 자 부탁드립니다.

김우성 : 저도 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도시설계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서 이자리에 참석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Prof. Trieb의 도시설계하는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생각, 그 흐름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짚을 것은 다 짚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여건을 어떻게 트립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투영하여 우리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시 특히 서울에 외국분들을 모시고 와서 서울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 물어 보았을 때 대개 외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참 좋다고 먼 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친해져가지고 저녁도 먹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질서가 없다 그리고 뭐 이게 미국이라든지 미국중에서도 제일 잘안된 도시, 그런 예를 따라가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잘 안 되어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발전도상에 있으니까 그런거 저런거 다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특징적인 것은 지형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상들께서 풍수지리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위치가 잘 잡혀 있고 지형이나 산수가 참 좋다는 것, 이런것을 잘 활용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트립 교수의 도시설계하신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다른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지형이 평평합니다. 여러가지 Context나 이런 것을 정할때 건물의 역사적인 것들이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건축물은 주로 구조가 석조로 되어 있습니다. Sand Stone으로 되어 있는데 Sand Stone은 톱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석조건물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 가고 해서 건물들이 대개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물의 오래된 역사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화강암토질이기 때문에 돌, 석조 건물들은 옛날부터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개 목조나 흙이나 벽돌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살아남아 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Context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옛날부터 우마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직선적이고 어느 정도 경사라든지 모든 것이 현대의 자동차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도시는 우마차, 인력거라든지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지 말을 타든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구조가 현대에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를 확장하고 이리다 보니까 그나마도 없는 Context가 더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일이나 유럽의 수준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설계를 보아도 우리는 건축설계비가 전체 공사비의 2-3%인데 제가 듣기로는 독일은 건축설계비가 공사비의 14%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여건과 시간, 조그만 도시설계 하나 하는데 (저희 기준에는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 50만 내지 100만의 큰 도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일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큰 것을 하는 데도 몇 개월만에 합니다. 그런정도로 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국제경쟁적인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보존적인 도시설계를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토지가 적습니다. 특히 가용토지가 적습니다. 또한 세계

적으로 인구밀도가 네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인구밀도를 보았을 때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요즈음은 특히 부동산 투기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토지를 고밀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트립교수께서 보여주시는 건축물들은 3층내지 5층 정도입니다. 그런 높이의 건물로서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축량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rieb교수께서 만약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도시설계를 과연 누가 해야 하나? 부터가 정립이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도시계획하는 분이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건축가가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아까 Trieb교수께서 말씀하신 도시설계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도시계획가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설계가도, 건축가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접합의 접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

(2) 서울의 경우 기존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판자집촌도 있고 한옥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고층건물도 있고 일제시대때 지은 국립박물관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철거해야만 할 때, 국가 건물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10층짜리건물을 도시설계하다보니 5층으로 잘라야 하는데, 그럴때 민간에게서 저항이 없겠는가, 있다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또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또는 고쳐야 되는지

(3) 세번째로 Trieb교수께서 아까 도시설계는 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가도 건물설계할 때 물론 Team work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종결정은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설계도 미관에 대한 문제는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는데 그랬을 때 건축가들의 주관적인 요소를 어떻게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어려움이 없으신지. 우리가 건축설계할 때 서울시에서 미관 심의를 받는데 이렇게 심의를 받을 때 여러 교수님들이 참석하는데 여러 교수님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미관에 대한 것이나 건축에 대한 것들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라서 여러가지 comment가 나오는데 도시설계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의견 취합이 잘 될 것인지 과연 의견 취합만 하다가 설계기간은 1-2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지 그런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병기 : 감사합니다. 지금 세분 코멘트하신 것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Trieb교수는 적어도 지금 여기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성숙된 도시, 성숙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 같고, 한편 한국 쪽에서 코멘트하신 세 분은 서울은 60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한 소용돌이를 외부에서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아직 배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나마 경제적 혹은 문화적 성숙기에 들어와서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설계라든가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그러한 시각에서 해 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서 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Floor에서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해주실 분이 계시면 반겼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정근선생.

이정근 : 우리 계획의 이정근입니다. 슈트랄준트라는 도시가 7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질서 있는, - 질서라는 개념에 어떠한 개념이 포함한다는 것은 첫번째 장면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관계로 인해 질서 있는 -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Stralsund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700년이란 오랜기간 동안 명문화되거나 형식화된 Typological Guideline이 없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 새삼스럽게 인위적인 Typological Guideline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그러한 인위적인 Typological Guideline을 오늘날 만든다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Stralsund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 아닐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때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이 Guideline을 만들어 지침을 주어서 그것을 Framework로 해서 앞으로 도시를 만들어 갈때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의 제반 종합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700년동안 이루어 왔던 질서있는 도시를 그대로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질을 유지할 수 있고 혹은 더 발전적으로 도시 형성을 해 갈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병기 : 지금 이 정근 소장께서 질문하신 것과 맥락이 같을것 같아서 함께 질문을 덧붙여 둘까 합니다. 아까 그 김 우성 소장도 Urban Design이 한사람이 해야 한다고 Trieb

교수께서 이야기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나 한 Group이 Urban Design한다고 했을 때 그게 Stralsund가 과거에 그런 Guideline없이 그냥 보통 백성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낫겠다는 보장은 과연 있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도 도시설계 하면서 그렇게 주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Guideline이라고해서 이걸 지키라, 혹은 이것이 이상의 모습이라고 도시의 장래 이미지를 미리 던지는데, 그게 여기 모이신 많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제각기 머리를 짜서 만들어 낸 것들 보다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여기에 Urban Design의 고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근 선생이 질문해 주셨는데 '독일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강하게 이런 규칙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이 되어있고 어제도 Trieb교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강한 도시설계내용을 만든지금 건축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도 또한 상당히 큰 차이인데 그것은 문화적 차이인지 혹은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독일에서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거꾸로 위에서 관장하고 소수의 엘리트집단이 만든 것을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해서 강제로 먹이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하나로 묶어서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어서 하나하나 대답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쯤해서 한 번 대답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아까 안건혁실장님 질문에서 시작해 김 우성 소장님, 그리고 이 정근박사님의 질문까지 여러가지 한 일곱, 여덟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시겠습니까.

Trieb :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물론 설계비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4%라는 것은 충분히 Information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건축가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도시설계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설계비입니다. 건축가에게도 14%란 많은 일을 할 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건축법은 건축가에게 상당히 디테일한 데까지의 상세도를 요구하고 상당한 부분까지의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건축가들은 일을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은 도시계획가나 도시설계가에게는 적용되는 보수요율표라는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가를 위한 보수요율 체계는 독일에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는 F-Plan (Flächennutzungsplan)이라는 토지이용 계획이나 그 아래 있는 B-Plan (Bebauungsplan)이라는 계획을 만들 때는 설계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가지가 도시계획에서의 작업으로서 독일에서 유일하게 건설법전에서 요구하는 것이며 건설법전에 의하면 이 F-Plan 과 B-Plan만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 것인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세가지 해야할 일이 있는 것같은데 (김기호교수께서 미리 설명하신 법규에서의 도시계획이란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일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도시설계적 일들은 그러나 시정부(Gemeinde)에서 용역으로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려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규에 쓰여 있는 그 두가지만 가지고는 우리 계획의 Practice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Paradox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즉 Stralsund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시에다 수 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큰 경비를 주는데 어떤조건이나하면 바로 오늘 보신 것과 같은 도시디자인계획이나 테두리계획 (Rahmen Plan)을 할 때만 돈을 주는데 이런 계획안들은 법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Paradox한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생께 대답하겠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기존의 상황이 별로 없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든지 과거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상황의 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꿈꾸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설계가는 설계 Concept를 가져야 하는데 당장에 지어질 만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수십년 수백년 까

지 단계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콘셉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들은 많이 있지 않는 기회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쳐 버리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인 Guideline이나 그런 것을 만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속에서도 건축가들의 새로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우리들을 만든 것이 아주 소박한 것인 것처럼 건축가들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상당히 소박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판타지나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력이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경우를 들어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얼굴의 높이나 폭이나 깊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일정한 크기 속에서 건축설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즉 보통 설계과제를 받게 될 경우 대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과제를 받습니다. 건축가로서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많은 끝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장님께서서는 우리는 주택의 문제가 있고 주택의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집들을 계속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어져야만 하고 대량으로 지어지는 주거지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quality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독일도 역시 2차대전 이후 오늘날 한국에서 있는 문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2차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빨리 많은 집들을 대량으로 지어야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전쟁 후의 빠른 시간내에 세워진 대량 주거지들의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도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주거단지들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비물질적인 사람들의 요구하는 측면에서 볼때 너무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Social Housing에 있어서 거주자들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높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

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빠른시간내에 집들을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 절대로 경제적이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거기서 질을 유지하는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문제는 결코 80%까지는 돈의 문제나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시간을 가진다든지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의 문제입니다. 즉 더많은 공사비나 그런게 들어가지 않고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우성 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유럽에서도 역시 오랫동안 목조건물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4-5층 정도의 목조건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600-700년쯤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을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context를 제공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context가 없는 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시 안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새로운 도시의 형태나 새로운 도시에 대한 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4-5층짜리만 보여 드렸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고층건물을 조정해서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가 남미의 여러 도시의 도시계획 advisor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리아나, 산살바도르, 칠레의 산티아고는 서울과 크기가 비슷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칠레의 동로와 함께 칠레의 도시를 위해 최초로 건물의 높이나 볼륨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High-rise Bldg을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형태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Sanfrancisco는 10여 년 전에 이 같은 생각을 했고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누가 도시설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가인가요? 제 생각에는 건축가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우리 건축가들이 기꺼이 도시건축가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건축가가 자기가 설계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주변

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과제를 취급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 세워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건축가의 Vision 내지는 설계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도시설계를 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해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어보면 나중에 누가 잘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0층짜리를 5층으로 잘라야 한다면 당연히 조레나 범물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도시 디자인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committee에서 일치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이 조정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committee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신망같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축설계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나 personality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Guideline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이 정근박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Guideline을 항상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의도적인 영향없이 자라나온 도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주 올바른 Guideline은 건축가들에게 많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여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얼굴이나 모습에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uideline을 통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런티할 것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개런티라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희망할 때입니다.

강병기 :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희망하신 두분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학 생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약간 추상적입니다.

1) 독일의 포츠담이나 슈트랄준트, 그 도시들은 현재 독일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후 동서독 두 시민들간의 사상적인 이

질감을 통일시키기 위해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라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로 포츠담이 썩기 형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Greenbelt가 점차로 없어지듯이 그 썩기 형태의 자연경관도 어느순간 없어지리라 보는데 그 시기가 몇년 후라고 보십니까? 또한 그 도시형태가 어느 정도 도로망에 대해 부적합한 형태를 갖고 있는것으로 느껴집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연 경관을 훼손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진에 : 어제 오늘 Trieb교수님 여러가지 얘기를 하신 것을 들으니 상당히 반가운 것이, 저는 그동안 저희나라에서 도시설계라 하면 제도적인 도시설계, 규제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식의 도시설계라는 상당히 고정관념이 많았는데, 그동안 사실 도시설계가 많이 왜곡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트립교수께서 도시설계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건축가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설계라는 것이 꼭 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건축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유보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도 도시설계의 문화생활적 측면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설계를 얘기하면서 도시설계와 도시경관,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역사적 전통을 도시환경에 표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크게 중요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보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만이 도시설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도시경관이란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도시설계라는 것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의미있게 하는 것만이 도시설계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Trieb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포츠담같은 경우 도시설계의 많은 부분이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하느냐 이 부분이 도시설계의 상당한 역할이 되는데 이러한 점이 어제 오늘 말씀에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역할 부분을 저도 강조를 드리면서, Trieb교수께서 지금 도시개발과 도시설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기 : 김진에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그것을 도시발전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깊게 도시계획을 하는 일부의 분들이 하는 것하고 내용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Urban Design을 하시는 분의 Approach는 샌프란시스코를 인용해서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자연, 경관계획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접근방법이 철저하게 Bottom up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해서부터 의미를 찾아나가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런 접근을 하는 일부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류를 이루지는 않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도시발전 계획 같은 것은 아까 김 우성 소장님도 질문하셨는데 건축을 Major로 하시는 분이 도시 발전계획까지를 하기는 우리의 교육커리큘럼내용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Trieb교수는 다른 말씀을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Trieb교수처럼 하나님을 인용할 수는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Ecology를 인용해서 도시에 접근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설계 하는 사람으로서 부러운 것은 자연의 질서있는 변화, 성장, 신진대사 등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굉장히 한정된 수의 - 이 분은 그것을 Typus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형은 아니고 일종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 그런 걸로 환원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트립교수는 도시설계에서도 그런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Trieb : 우선 학생이 질문한 왜 이렇게 동독의 도시들을 설계하는 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포츠담과 슈트랄준트의 경우를 일부러 보여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곧 이러한 과제에 접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은 경우가 생기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과제에 있어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정말 힘없이 되어버린 옛 동독의 국민들이 막강한 서독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볼 때는 잘 느끼지 모르지만 가능한한 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당히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시로부터 받은 과제는

바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독에서 도시계획하면서 범했던 실수를 동독에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실무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 동독의 경우에 있어 사용하려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느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평양의 도시계획을 하라는 과제가 떨어질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곳에서 했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번째 greenbelt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어서 이런 녹지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나무가 하나 잘린다 할 때에도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각이 바로 정치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여론을 만들어 포츠담과 같은 곳의 췌기형태의 Green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Greenbelt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그것을 지키자는 운동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그린벨트는 지켜지리라 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예날의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교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깥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을 해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점점 그들의 도심부를 교통으로부터 자유로운 - 즉, 차가 못 들어가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태리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최소한도 도심부에 있어서는 도시 평면이랄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에 박사의 질문하신 도시 개발과 도시설계의 관계에 관한 답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Das Ganze ist immer mehr als die Summe seiner Teile)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상당히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서 Urban Design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일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마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Urban Design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시 중요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에는 갑자기 도시생태나 이런 것이 중요성을 갖고 각광을 받다가 내일에는 교통이 각광을 받다가 등등 한다면 전체로서의 도시는 망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기 :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 해주신 청중 여러분, Trieb교수님, 토론자 세 분, 가장 수고하신 통역자 김 기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 회 : 이것으로서 Trieb박사님의 도시설계강연회를 마칩니다. (끝)

본지에서는 지난 3월 30, 31일에 있었던 독일의 도시설계 강연회에 회원들의 대다수가 참여치 못하였던 관계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회때 나누어 주었던 강연 내용의 초록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생태학적 견해로 본 도시

CITIES FROM AN ECOLOGICAL VIEWPOINT

1. 환경과 도시

전세계적인 거대 도시의 시대에, 지구 전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커져가는 시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 도시의 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불연속성, 자아의 상실, 통제불능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생활의 문제를 볼 때 미래의 도시 설계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①)

미래의 도시 설계에 대한 이런 방식의 주된 생각은 지구가 대체적으로 볼 때 보다 강한 힘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유기생명체이며, 도시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생태학적 접근의 기본적인 논법이다.

결국 도시 생태학적 견해의 주된 문제는 도시 설계에 대한 실제적인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힘과 규칙, 현상, 원칙 등이 자연계에 있다면 어떤 것이 도시 설계를 통해 도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현존하는 그리고 진취적인 "일반" 생태학적 문제들 - 모든 형태의 환경오염 -

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자연의 감춰진 채 알려지지 않은 설계 원리를 훨씬 깊게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을까?

2. 하나의 대우주로서의 자연, 소우주로서의 도시

전체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요, 대우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이다. 이에 비해 도시는 하나의 소우주로서 우리가 수년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작지만 완벽한 하나의 세계이다. 무엇보다도 도시는 재창조 작업과 통신 등의 일을 하는 기계 또는 종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정치적 힘의 복합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영원한 변화를 겪으면서 한 자리에서 성장하고 다른 것 속에서 쇠퇴하며 공간과 시간속에서 발전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이기도 하다. 동시에 유기체로서의 도시는 자연 환경이라는 더 큰 유기체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도시의 질에는 자연 환경의 일부라는 것과 유기체 자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3. 생태학적 관점

(사진 ②, ③)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경의 질과 도시, 그리고 그 환경의 병들음을 복합적인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으로 보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태학적인 문제는 대개 대기와 물, 그리고 토양의 오염, 삼림의 질병과 관련되며,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과 관계된다. 이런 모든 레벨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국부적, 지역적, 그리고 전세계적인 문제들이 있다. 내일의 도시들은 이런 의미에서 자연의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생태학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와 환경은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도시와 환경의 관계의 한 측면이며, 이런 방향에서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진행되고 있다: 자연 하수계, 난방을 위한 생물 및 태양 에너지 시스템, 조명과 교통, 생물학적 건축 자재,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또한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일단 우리는 진행중에 있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

4. 도시와 인간의 아이디어

그러나 인간이 창조하고 또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생물체로서의 도시에 관해 좀 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론적인 연구를 거의 행하지 않았고 실제적

인 경험도 매우 극소수이다. 또한 인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의 질을 실제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는 인간과, 인간과 자연 및 도시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노력한다면 - 종족이나 성별, 국적과는 별도로 - 인간이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이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할 것이다. 이때 인간을 위한 질(質)이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욕구의 복합체가 된다. (사진 ⑭)

자연환경은 대개 이 질을 갖고 있어서 생명을 위한 자연조건을 만들어 주고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며, 정신적 창조성을 고무시켜 준다 - 아시아의 문화는 항상 이를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의 한 장소는 음식을 생산하고 이러한 인간의 세가지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인간의 물질적 존재, 정신적 진화 및 예술적, 지적, 정신적 창의성의 장(場)이 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임무는 뚜렷해진다. 자연의 생태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생태 정신적, 생태 심리적 측면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 ⑬, ⑮, ⑯)

5. 환경의 원칙

인간의 물질적 존재의 장이 되려면 미래의 도시는 자연의 생태학적 법칙에 적응하는 생태학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심리적 경험 및 창조적 생산성의 장이 되려면 미래의 도시는 자연이 생태 심리적, 생태 정신적 상태를 제공하는 도시 환경에서의 정신적 감성적인 질을 - 물론 다른 방법으로 -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태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생태 정신적 현상과 규칙, 법칙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 - 자연과 유사하게 - 우리가 도시 환경에서의 인간의 생태 기술적 욕구와 함께 심리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경험과 이론적 연구는 모두 도시의 질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 뒤에는 동일한 정신적 현상과 규칙,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삶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일상적인 도시 생활환경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6. 질서와 다양성

(사진 ⑤, ⑥, ⑨) 도시의 한 가지 문제는 전세계적인 도시 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도 불협화음과 혼돈을 만들어내는 질서와 다양성의 차단된 대조이다. 작은 집들이 마천루 가까이 서 있고 단조로운 주택가가 무질서한 도심을 에워싸고 있어서 여기서의 다양성은

공통분모를 갖지 않는 파괴적인 것이다.

자연은 항상 질서와 다양성 사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물들은 개별적인 것이건 전체 속에서건 항상 이런 평형을 잘 보여준다. 나무의 가지들 또는 식물의 각 이파리의 형태가 질서와 다양성을 조화롭게 해주는 자연의 역량을 입증해 주고 있다.

도시설계와 실제 경험이 말해주듯이 관심을 끄는 도시 환경은 수천년간 같은 정신적 원칙을 지켜왔다. 어떤 문화에서건 도시 질의 한 측면은 항상 질서와 다양성의 가시적, 비가시적 통합이었다. 오늘날에서조차도 작은 마을 뿐 아니라 큰 도시들은 똑같은 유형에 속하는 개개의 집들의 외관의 조합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리 풍경을 만들어 내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사진 ⑧)

질서와 다양성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양극성을 가지는 힘이다. 따라서 통일성은 다양성에 질서를 부여한다. 다양성이 없으면 지나친 질서는 획일성과 단조로움, 지루함을 줄 뿐이다. 한편 통일성에 의한 질서를 주는 효과가 없는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혼돈에 이르게 된다. 아름답게 인식되는 자연의 조화로운 다양성은 약간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 변화, 수정 등에 의한 것이다. 요한 볼프강 괴테는 “자연은 하나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운행하고, 이 운행으로부터 삶의 다양성이 나온다”고 했다.

예를들면 멀리서 보면 나무는 똑같은 이파리를 무한정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파리들은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은 목초지나 나무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멀리서 보면 전체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 균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것들이 색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한 비슷한 개체들로 무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다; 다양성 안에서의 이러한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전체는 아름다와 보인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품에 대한 알버트 슈바이처의 코멘트가 말해주듯이 음악에서도 거의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바하의 특징적인 표현은 거의 모두가 20~25가지의 기본적인 테마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와 그 변화가 질서를 발생시키고 자연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과한 제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역으로 자연계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인류에게 있어서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은 미의 필연적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이 환경을 조화있는 전체로서 인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야야 환경과 함께 자신이 존재를 규명하고 또 환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진 ⑨, ⑩, ⑪)

따라서 동일한 원리가 도시 건축 및 자연, 즉 도시 풍경을 형성하는 이런 양극성을 가진 힘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다양성과 개성을 만들어 내고 타운에 생명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모든 변화 요소들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화있게 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개발해 주는 질서의 공통적인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도시 설계에 있어서는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을 위한 조사가 도시설계 작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체로서의 타운과 그 거리, 광장 및 집들에 모두 적용된다. 어떤 레벨의 도시 조정에서도 전체와 부속 요소 간에는 조화가 창조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질서에 대한 이러한 요구의 실제적 의미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성 부분들은 균질성을 유발하는 소수의 설계 원리로 구성된다. 예를들면 비례, 임면들의 조합, 재료의 선택, 그리고 한 도시내에서는 단지 소수의 건물유형을 사용하는 원칙등이다. (사진 ⑫)

7.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서로 대결하는 입장이고 정반대적인, 서로 다른 기능과 건물 형태들이 서로 무관한 가운데 동일 생활권을 이루는 것이 도시 환경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이다. 조정되지 않은 도시 개발 및 엘리트적인 건축 경향은 기존의 도시 구조와 새로운 단독적이고 기능적이며 심미적인 요소와 대립하게 한다. (사진 ⑬)

자연에는 항상 대규모적인 풍경에서부터 개별 식물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독특한 것 사이에 평형이 유지된다. 한 거대한 산이 다른 산들과 넓은 풍경을 압도하거나 하나의 꽃이 식물을 장식한다면 그 원리는 항상 같다. 특수한 기능에는 특별한 하나의 형태가 주어지지만 항상 전체의 일부로서, 한 창조물의 장식으로서이며 특수적인 요소는 대비로서가 아니라 최고조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장한다. (사진 ⑮, ⑯, ⑰)

풍부한 도시 환경은 항상 같은 설계 원칙을 따랐다. 절, 궁전, 대규모의 성당은 마을 풍경의 영광스런 절정이었고 이러한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통합 개념은 문 손잡이에서부터 스카이라인, 거리형태, 건물의 외관과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시에서, 모든 스타일과 문화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항상 작용하는 정신적인 원리이다. (사진 ⑱)

8. 연속성과 변화

(사진 ⑱) 연속성과 변화 사이의 세계적인 불일치가 도시 환경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이다. 심미적 의미와 함께 기능적, 사회적 의미에서 뚜렷한 도시의 불연속성이 집 없음과 방향 감각의 상실, 외로움을 야기한다. 연

속성과 변화는 모두 도시 발전의 일반적인 힘이지만 때를 맞춘 일방향적 변화나 일방향적 연속성은 세계 도시들에게서 빈번한 문제인 도시의 병을 말해준다. (사진 20)

자연에서 연속성과 변화간의 밸런스는 각 국가의 풍경 변화에서부터 각기 다른 계절 동안의 식물의 변화, 밤낮의 꽃의 모양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소에서 있어서 꼭 필요한 설계 원리이다. 이 밸런스는 건강한 유기체의 가시적 표현이며, 밸런스가 깨지면 질병의 신호 - 갑자기 말라버린 나뭇잎, 성장의 중지, 완벽한 형태의 변화 - 가 된다.

오늘날 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상적인 도시 환경에는 이러한 연속성과 변화간의 밸런스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오직 급세기 만이 정상적인 유기체의 이 은밀한 규칙을 상실했다. 언제든지 도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도시 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기능적, 사회적 또는 도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했다. 도시 및 자연에 작용하는 또 다른 설계 원리 - 현실적인 질을 가진 도시들은 수천년간 이 원리를 따랐다.

모든것은 흐른다. - panta rhe! 이 기본적인 말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 말로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존재 형태는 영원히 변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속성은 변화의 반대 급부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해받지 않은 우주적인 일관성을 보장하는 연속성이 있다.

우주나 자연계에서 정적인 것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것은 변화하게 된다. 지구의 등고선은 계속 변하고 산꼭대기는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지고 한때 풍성하던 초원은 사막으로 변하며 이전에 바다로 뒤덮여 있는 곳이 지금은 육지가 되어있다. 계속적인 진화의 결과 새로운 종(Species)이 나타나고 다른 것은 사라진다. 자연은 연속하는 힘과 변화하는 힘 사이의 계속적인 평형상태에 놓여 있다. 다시말해 자연은 살아있는 동적인 유기체로서 같은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는 종종 변화에 저항하려고 노력하지만 생명 자체는 변화를 의미한다. 어떤 것을 변화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변하지 않고 고정적인 것을 이상화하며 변화와 연속성을 화해할 수 없는 쌍극으로 보는 대신, 이 두 요소를 풀 수 없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조화를 이룬 변화는 연속성을 의미한다. (사진 4)

도시나 마을의 개발은 정적인 것으로 있을 수가 없다.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도시의 기능과 결국 그 디자인의 변화를 의미한다. 도시는 전체적인 것의 동시적 연속성과 결합된 개별적인 것의 계속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존

재해 나간다. 연속성은 주로 시간적인 발전과 관련된 단순성과 다양성을 이용함과 동시에 원형과 변형의 주된 동기를 존중하고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문제를 더 세부적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특정 지역성의 본질은 이런 주된 동기를 인식함으로써 보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지역성은 그 기능 변화에 적응될 수 있다. 이런식의 변화가 연속적인 프로세스가 아닐 경우에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고 도시는 그 종속적 부분들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 성격을 상실할 것이다. (사진 22, 23)

건축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위치의 지역성의 발전과 그로 인한 설계 요인(factor)의 연속성과 시대가 요청하는 건축 양식에 의한 변화 사이의 밸런스를 항상 추구하고 개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밸런스 또는 통합은 전체로서의 도시를 다루건 아니면 하나의 구역이나 거리를 다루건 간에 도시건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9.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

그러나 오늘날 도시 환경의 주된 문제는 전체 도시와 그 부분들에 공통되는 전체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장소적 특성의 희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고유성과 특별한 이미지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시의 질을 잃어버린 주요인이다. 또한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조화, 연속성과 변화 사이의 밸런스 등 앞에서 언급한 모든 설계 원리는 전체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없이 도시 질을 부분적으로만 개선시킬 수 있다.

현상학적인 연구가 입증하듯이 자연계에는 항상 기능과 형태의 뒤에 모든 레벨의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있다. 일련의 산맥, 언덕 또는 다른 풍경들은 변화하는 날씨 조건하에 있는 구름의 형식이나 서로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설계"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다... (Gertrude Stein). 예를들면 식물과 풍경, 대기 현상의 고유성은 항상, 기능과 형태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만들되 혼동될 수는 없는, 내재적 공통 설계 원리에 의해 창출된다. (사진 7)

과거와 현재의 유명한 도시들은 모두 그 장소의 고유성과 성격, 특이성을 보증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훌륭한 도시를 위해 이와 같은 기본 규칙을 지켜왔거나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성공을 위한 열쇠로서 자연속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패션, 그리고 산업적인 생산 활동 속에서 우리가 기본 원리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져버렸다. 우리 도시의 질을 실제로 회복하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 - 이것은 작은 도시와 타운 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하여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미래의 도시 설계를 위한 주된 작업이 될 것이다.

10. 유형과 변형

그러나 마지막 문제는 도시가 그 성격을 보존하고 고유성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로 전체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어떻게 따르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연이 어떻게 항상 같으면서 생물체가 되고 성장하고 꽃 피우며 쇠퇴하는가? 그리고 자연은 그 해답과 함께 현상적인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에 걸친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비밀은 typus와 그 변형의 원리 - 자연요소의 기본 구성요소 - 이다. 식물의 기본적인 typus는 층체적인 식물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내재된 계획을 가진 배아에서 출발하여 팽창과 수축, 한 부분의 주도 또는 환경에의 적응을 통해 이 "설계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조화, 연속성과 변화 사이의 하모니이다. (사진 25)

인공적인 세계에서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개념 - typus - 및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의 그 변형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와 함께 성공적인 산업제품의 알려지지 않은 비결이다. 전체는 공간과 시간상의 그 부분들의 요약 이상이며 자연이 그렇듯이 유기적인 발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독일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Daimler - benz뿐만 아니라 프라하 로마 또는 파리의 비결이기도 하다. typus는 일련의 비슷하거나 관계가 있는 개별적인 것에 공통된 독창적인 또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자연적인 형태의 존재나 본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원형만이 전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복제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단순하고 단조롭게 될 것이다. (사진 27, 28)

원형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은 종과 모양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며 그 과정은 변형(metamorphosis)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 변형이란 오비드 식의 transformation 개념도, 또 모충이 유충이 되어 최종적으로 나비가 되는 경우와 같은 생물학적 형태 변화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철학자 괴테가 말한 바와 같이 형태의 규칙적인 변화(transformation)이다. 괴테에게 있어서 식물 변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 식물의 본질 또는 typus가 모든 성장 단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그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식물이 발달하는 한편 이는 사실

하나의 동일한 기관들이 매우 다른 형태로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모든 식물은 지금 우주의 법칙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각 꽃의 음성은 점점 크고 뚜렷해진다. 이 단계에서 만약 당신이 여신의 성스러운 문구를 해독한다면 당신들은 모든 사물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다.” (사진 30)

Rudolf Steiner는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형에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됨을 발견했다. 간략히 말하면 인간의 생애에서 중첩되는 단계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개 단계를 초월하여 계속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도 결국 이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여러 단계를 통해 동일하게 있다. “유행학적 사고”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용한 것이었으며 이는 개별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려고 하고 따라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접근하게 된다. (사진 26)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물체의 생동감은 주로 위에서 설명하듯이 변형이란 의미에서 하나 이상의 기본 유형의 변화에서부터 기인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현상과 사물의 다양성을 몇가지 기본적인 유형의 변형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우리가 꽃을 보건 눈의 결정을 보건 간에 모든 자연현상은 몇 가지 원형에서 진화하고 있다. 도시는 그 도시에 개성과 본질을 부여하는 기본 유형의 특징적인 조합이 지속적인 변형의 과정을 이어갈 때 살아있을 수가 있다. (사진 21)

도시 설계자는 반드시 자연의 유기적 창조 원리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관련지어야 하며 이를 도시 계획 원리로 해야 한다. 장소의 본질은 그 원형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의 도시를 생각할 때 그 도시의 원형과 건물의 유형적 요소를 발견하고, 변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런 요소들을 계속하여 개발하는 것은 도시 설계자의 일이다. 이것이 도시 건축을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생기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그 개성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기존 양식으로 건축을 계속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으면서 설계의 “초시간적인” 원리와 원형 그리고 그 특징적인 조합에도 부합하는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29, 31)

(사진 24) 구체적으로 이는 확장해야 할 도시의 배치구성이 이런 의미에서의 변형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배운의 한 오래된 도시에서 원래 실시되었던 것처럼 한 도시에서의 건축 형태의 설계에서도 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원형적인 건물은 수세기에 걸쳐 보존되었고 현대 양식으로 계속 재설계되고 있다. 배치와 외관, 창문에서도 물론 원형의 변형이 가능하다.

11. 도시 설계에 있어서의 자연의 설계 원리

현대 도시에 미래를 위한 질을 높여주기 위해 도시 계획과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진 38, 39, 41, 41) 프러시아주와 독일 군사주의의 요람이고 Frederick 대왕, 바하, 볼테르 또는 에리히 멘델스존의 아인슈타인 타워, Sanssoucy 등의 건물들과 관련된 독일의 유명한 포츠담에서 재통일 후 현재 도시 개발 계획에서부터 소규모의 건축 계획들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새로운 기획 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42, 43) 도시 개발 계획은 새로운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으로서 개발해야 했다 역사와 문화, 교육과 과학, 물, 정원과 공원, 기타 측면의 상징으로서의 포츠담과 같은 부이미지로 구성된 새로운 이미지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작업, 주택, 쇼핑,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개발 목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한다. (사진 44, 45)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 개발 계획으로 바뀌어져, 겹쳐질 경우 토지 사용, 교통 및 도시 설계를 위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 도시 계획의 주된 작업은 미래 포츠담의 기능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과학적, 생태적 특면 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자연에서와 같이 개발하고 전체 도시를 위해 기능적인 도시 설계 개념 - 기능과 형태에 있어서 동시에 실현해야 할 일반적인 아이디어, “Leitbild” - 을 자세하게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고유성을 위한, 성격을 위한 조사, 인간이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존재의 장(場)으로서의 포츠담의 이미지, 내일의 포츠담의 2차원적, 3차원적 모델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있다. (사진 46)

(사진 47, 48, 49)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 한자동맹 전통으로 알려졌고 도시 건축학의 국가적 금자탑으로 여겨지는 Stralsund의 또다른 유명한 도시에서 이 작업의 목적은 1 세기가 된 일반적인 도시 설계 아이디어와 재발견과 복구, 변화와 새 건물의 설계를 위한 건축지침의 개발과 명확한 설명이었다. 이전의 다른 도시의 도시 설계 계획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자연의 원칙과 규칙, 법규가 생활 공간으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진 50) Stralsund의 초시간적 설계 아이디어의 명확한 정의와 질서와 다양성의 통합, 연속성과 변화,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밸런스 등의 설계 원리의 적용이 투자자들의 커다란 압력하에서도 도시의 고유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개발하도록 도운 도시설계지침과 건축법규를 존속하게 했다. (사진 51, 52, 53, 54)

12. 결론

생태학적 견해에서 본 도시 ; 자연 환경과 도시 환경간의 비교, 자연적인 생물체와 인공적인 것의 비교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오염, 소음, 토질의 악화에 관한 생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 환경에서의 우리의 심리적 개발과 정신적 창의성에 관한 생태 지적, 생태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 결과는 인공물인 도시의 생태 기술적인 병과 함께 질서와 다양성의 혼돈, 일반적인 것에 대한 특수적인 것의 이기적인 투쟁, 연속성과 변화의 불연속성, 대부분의 도시에 있어서 안내자로서의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상실 등이 생태 지적, 생태 정신적인 질병에 의한 발생한 도시의 전체적인 병적 상태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도시 안과 주위의 환경과 그 생태 조건을 존중할 뿐 아니라 도시의 질에 관한 자연의 심리적, 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 내에서 - 자연적이건 인공적이건 - 지적인 육구와 정신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배아에 숨어있는 전체 유기체를 위한 건축 계획의 일반적인 원리를 배우고 설계 아이디어로서의 typus를 배우며 이것이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의 변형에 의해 개발되는 방법을 배운다. 연속성과 변화, 일반적인 것과 독특한 것, 질서와 다양성 등의 양극적인 힘을 융합하여 새로운 질을 창조하는 기본 원리와, 기교적 제한된 수의 원소들을 결합시켜 자연이 해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사진 3)

도시의 질은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육구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리적, 생물학적 법칙에 맞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지적, 정신적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한 전신적인 규칙에도 맞는다.

도시는 인간을 위한 실제적 질을 통제하는 정신적 규칙과 법칙을 발견함으로써도 그 질을 높일 수 있다. 아시아의 문명은 자연속에서 이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

주 ① 1992년 6월호의 영문제목은 ‘독일의 도시설계 (Urban Design and Natural Environment)’바로 잡습니다.

② P. 60의 사진설명은 강연회 초록에 바탕을 둔 항목 분류입니다.

③ 사진자료는 독일잡지 GEO, 엽서, 책 그리고 슈트트가르트市 자료실 및 트립교수가 직접 찍은 사진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진 제공 : 미카엘 트립)